

루나·테라 거래중단에 가상화폐 폭락... 투자자 '발동동'

〈한국산 코인〉

금융 이슈리포트

암호화폐 패닉

비트코인, 2.6만 달러까지 하락
암호화폐 전체 시총 1.14조 달러
작년 3조 달러... 1.86조 달러 증발

루나 고점대비 99%, 테라 57% ↓
바이낸스·고팍스 등 루나 거래 중단
"투자자, 매도세... 시장하락 지속"

비트코인이 지난 5일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2만6000달러까지 하락했다. 디지털 '금'이라고 불렸지만 현재는 '휴지조각' 위기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이유다.

◆최고가 대비 60% 폭락...불확실성 지속

15일 암호화폐 시장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 12월 2만 6000달러대까지 하락해 18개월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모든 주요 암호화폐가 급락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2만7000달러 밑으로 하락한 것은 지난 2020년 12월 30일 이후 처음이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도 1789달러로 떨어졌다. 이더리움이 2000 달러 아래로 추락한 것은 지난 2021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시총)도 1조

#	Name	Price	24h %	7d %	Market Cap	Volume(24h)	Circulating Supply	Last 7 Days
1	Bitcoin BTC Buy	\$29,610.03	-1.18%	-14.11%	\$564,089,326,061	\$27,688,571,528 934,597 BTC	19,040,206 BTC	
2	Ethereum ETH Buy	\$2,014.13	-0.28%	-20.76%	\$243,396,303,509	\$14,279,112,007 7,085,877 ETH	120,783,162 ETH	
3	Tether USDT	\$0.9987	+0.04%	-0.12%	\$75,647,277,903	\$57,917,965,127 57,998,236,074 USDT	75,752,120,651 USDT	
4	USD Coin USDC	\$1.00	+0.02%	+0.02%	\$51,086,634,585	\$5,369,970,854 5,368,816,644 USDC	51,075,654,131 USDC	

비트코인이 2만6000달러까지 하락 후 현재는 소폭 상승하고 있다.

/코인마켓캡

1400억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시총 1조 달러 붕괴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최고가를 기록했던 지난해 11월에는 약 3조 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은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공포와 인플레이션 우려로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가격 낙폭을 키우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오는 6월과 7월에 빅스텝(0.5%포인트) 추가 인상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미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도 전년 대비 8.3%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8.1%)를 웃돌아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투자심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배경이다.

데이터 조사 업체 얼터너티브(Alternative)에 따르면 코인 시장의 투자심리를 알려주는 '공포·탐욕 지수'는 10으로 나타났다. 10 포인트의 공포·탐욕 지수는 지난 1월 이후 처음이다. 시장에서

는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오안다(OANDA) 아시아·태평양 제프리 헬리 수석시장이 연구원은 외신 인터뷰에서 "현재 상태가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비트코인 가격이 2만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유명 가상화폐 트레이더 피터 브란트는 트위터를 통해 "차트를 살펴보면 비트코인이 약세에 접어들었다"며 "3만2000달러 선을 깨고 2만8000달러 선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흔들리는 시장 속 테라·루나까지 속삭여

최근 비트코인이 2만6000달러 대까지 떨어진 배경에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지만 루나와 테라(LUNA) 사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암호화폐시장에 따르면 최근 한국산 코인 루나와 테라가 고점 대비 각각 99%, 57%가 폭락했다.

UST는 블록체인 기업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기존 코인보다 안정성을 높인 상품으로 미화 1달러와 1개 코인의 가치를 연동하는 코인이다.

UST를 테라 프로토콜에 팔면 1달러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1달러 상당의 루나를 지급하는 구조다. UST의 가치가 1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가치 보전 코인 루나를 팔아 UST의 1달러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것이 UST와 루나의 운용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금리 인상으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며 투자자들이 UST를 판매하자 루나 가격도 함께 내려가면서 이번 사태가 일어났다.

UST와 루나는 가상자산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 기준 시가총액 10위 안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성장해 한국을 대표하는 코인이었다. 폭락 전 테라와 루나의 시총은 각각 23조원, 39조원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거래가 났기 때문에

타격은 더욱 심각하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지난 13일부터 루나 현물 거래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바이낸스는 지난 10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루나와 UST는 보유 중인 출금 거래가 많아 일시적으로 출금을 중단시켰다"며 "네트워크가 안정적이고 보유 중인 출금량이 줄어들면 출금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가상거래소들 역시 투자자보호를 위해 거래를 중단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고팍스는 국내거래소 중 처음으로 오는 16일 오후 3시부터 루나와 테라에 대한 거래를 종료할 예정이다. 업비트와 빗썸 역시 공지를 통해 루나에 대한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안내했다. 업비트는 오는 20일 오후 12시부터, 빗썸은 오는 27일 오후 3시부터 거래가 종료된다.

코빗 역시 지난 10일 루나를 거래주의 종목으로 지정했고, 코인원은 10일 오전 8시30분부터 루나의 입출금을 일시 중단했다. 사실상의 상장 폐지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암호화폐시장 관계자는 "루나 사태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비슷한 성격의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화폐)도 매도하면 시장 전반의 하락을 지속될 것"이라며 "가상자산법이 하루빨리 생겨 투자자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더 강력한 방역·전수검사 '혼란의 베이징'

차이나 뉴스 & 리포트

관광지·호텔 등 3일간 영업중지
지하철 18개 노선 92개 역 폐쇄
베이징 시민 90% PCR 검사 받아
"재확산 피해규모 2020년의 10배"

베이징이 혼란에 빠졌다.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와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등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택배나 배달도 모두 불가능한 봉쇄가 시행될 것이라 루머는 베이징 시민들을 공포에 빠트렸고, 다시 한 번 사재기가 성행했다. 노동절 연휴부터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는 끝날 기미가 없고, 일부 대중교통 중단에 이어 신규 감염자가



지난 13일 중국 베이징 하이뎬구에서 한 의료진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위해 어린이의 샘플을 채취하고 있다. /신화·뉴스시스

발생한 지역은 택시마저 이용할 수 없도록 묶어냈다. 기존 엄격한 입국 제한에 이어 자국민들의 출국까지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베이징에 꼼짝없이 갇힌 상태가 됐다.

15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전일 베이징의 감염자 수는 총 4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하순부터 강도높은 방역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베이징의 일일 신규 감염자 수는 두자릿수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특히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곳 바깥인 이른바 '사회면'에서도 신규 감염자가 계속 나오면서 방역정책은 강도가 더해졌다.

베이징은 시 전역을 대상으로 13일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14~15일 재택에서 쉴 것을 권장했다. 권고 형식이지만 사실상 강제에 가깝다. 소규모 공원을 포함한 모든 관광지와 호텔 등은 해당 기간 동안 영업을 일제히 중단됐다.

베이징 시내에서 폐쇄된 지하철역은 총 18개 노선, 92개 역에 달한다. 특히 신규 감염자가 나온 광산구와 순이구의 경우 버스 운행이 중단되고, 인근 지역은 택시 운행까지 중단됐다.

코로나19 전수검사는 다시 시작했다. 차오양구와 하이뎬구, 순이구 등 12개 구는 13일부터 15일까지 연속 사흘간 전 주민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했다. 12개 구에는 베이징 시민의 90% 이상이 거주한다.

강력한 제로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는 팬데믹 초기인 우한 사태 당시보다 10배 이상이 될 것이라 추정도 나왔다.

/안상미 기자 smahn1@

우리나라 IPEF 가입문제 공식화할 듯

>> 1면 '尹-바이든, 21일'서 계속

이에 따라 교착 상태인 남북, 북미관계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기로 대화 재개 가능성을 모색할 수도 있으나, 북한이 자력으로 지역 봉쇄 등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정부와 국제사회의 지원 방침에 답할지가 변수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IPEF 가입 문제도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IPEF 참가국으로는 미국과 우리나라와 일본·호주·뉴질랜드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필리핀·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 다수도 명단에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IPEF는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 간 무역, 공급망, 탈탄소

와 인프라, 탈세와 부패 방지 등 4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포용적이고 유연한 경제네트워크를 지향하는 일종의 '경제안보 플랫폼'이지만, 사실상 목적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며 무역질서를 재편하려는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가 IPEF 가입을 결정할 경우, 그동안 IPEF 출범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온 중국의 반발이 더욱 거세져 경제의존도가 높은 중국과의 갈등도 불러올 수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5일 한미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대응전략 및 상황 관리 방안 ▲경제안보 중심 공급망·신기술 등 양국 협력 방안 ▲주요 국제현안에 대한 양국 간 기여 방안 논의 등을 다룰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지금까지도 최종 의제를 조율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테슬라 등 수입차 업계도 가격인상 조짐

>> 1면 '부품대란에 카탈레이션'서 계속

더 2023 K8의 가격(개별소비세 3.5% 기준)은 가장 저렴한 노블레스 라이트부터 가장 비싼 플래티넘 트림까지 3318만~4565만원이다. 지난해 K8 가격이 3279만~4526만원으로 책정된 것에 비해 오른 가격이다.

르노코리아자동차도 올해 '2023년형 XM3'를 내놓으면서 가격을 인상했다.

올해 연식변경 모델의 가격은 1866만~2863만원으로 2022년형의 1787만~2641만원보다 가격대가 높아졌다.

수입차 업계도 가격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는 지난해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판매가를 올리고 있다. 올 들어서도 지난 3월에만 두 번 인상했다. 테슬라는 모델3 가격을 990만원 이상 인상했으며 모델Y는 1500만원 이상 올렸다.

/양성운 기자 ysw@

토지소유자 소재확인 공고(1차)

도시가스사업법 제42조의 2항에 의거 가스배관 시설을 설치하려 하오니, 토지소유주 및 관련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641-3
- 소유주 : 유준상, 정재룡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까지
- 공고인 : 협성설비(주)
- 연락처 : 조규준 010-9011-9304

2022. 5. 16